

# 알바르 아알토의 가구디자인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Stage of Furniture Design of Alvar Aalto

한영호\* / Han, Young-Ho

### Abstract

The move from steel tubes to bent wood and the "laboratory experiments" with wood which Aalto carried out in order to create furniture gave him vital impulses as he sought and found his own architecture style in the 1930s.

Like his architecture Aalto's chair designs represent a 'humanized' interpretation of the severe aesthetic and radical technological experimentation of the Modern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at is the result of the form of his works on the basis of main idea and tend of his works, to search the element and principle of formal composition,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tect's philosophy and the form of his works.

Aalto's furniture, constructed of laminate bent wood or moulded plywood, is not only functionalistic, but also ideal for the psychological need of the people, which is the special quality that complements the Factionalism that features mostly on the metal tube furniture. It shows that Aalto is a humanist dealing with mechanized age.

키워드 : 알바르 아알토, 가구디자인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가 자신이 동시에 뛰어난 실내 및 가구디자이너로서 공간의 최종적인 부분의 디테일과 마감재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섬세한 디자인을 시도한 예가 흔히 있었으나 아알토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sup>1)</sup> 속에 타민족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주체성을 찾으려는 문예부흥운동이 20세기 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기에 아알토는 건축 및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알토의 작품세계에서 그의 가구디자인 발전단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아알토의 가구디자인 발전단계로 초기(낭만적 풍토주의와 기능주의의 영향), 모색기(Asplund와 Breuer의 영향), 실험기(Thonet Competition과 Helsinki Minimum Apartment 전시회에 도전), 완성기(Paimio Armchair의 완성), Artek시대로 구분하여 결정적 시기의 작품 특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 2. 가구디자인의 발전단계

### 2.1. 초기

아알토가 건축가로 활동한지 얼마 안되어 핀란드는 독립을 했는데 그는 단지 기존의 건축상의 특색을 깨버림으로써 National Romanticist's Vision하의 좁은 핀란드 영역을 거부했다. 초기 아알토 가구의 특징은 그의 선배들이나 기존 스타일과 비교해서 볼때 무제한의 자유로움(unrestrained freedom)이었다.<sup>2)</sup>

아알토가 이러한 역사적이고 낭만적인 꿈에서 깨어나 기능주의자로 전환되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독일 바우하우스 내의 사회개혁자인 르 코르뷔제와 네덜란드 De stijl 그룹의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회원들이 내놓은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새로운 형태는 분명히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척의 새로운 이상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녔다. 아알토는 쉽게 그들과 합류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아알토의 반응은 상당히 빨랐다.<sup>3)</sup>

1)핀란드는 원래 서기 약 1200년경부터 1807년까지 약 600년간 스웨덴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 후 1917년까지는 러시아의 자치령으로 주변 강대국사이에 끼어 많은 혼란은 겪었으나 결국 1917년 12월에 완전히 독립함.

2)Juhani Pallasmaa, Alvar Aalto Furniture, The Museum of Finish Architecture, Helsinki, 1985, p.63

\* 전임회장,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아알토가 중시하였던 것은 가구란 산업적으로 대량생산되고 저렴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준가구의 개념은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Bauhaus Circle에 의해 만들어졌고 가끔 Gropius의 이야기에 등장한다. 아알토는 이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 그 자신이 가구디자인 하는데 있어 이에 충실했다.

## 2.2. 모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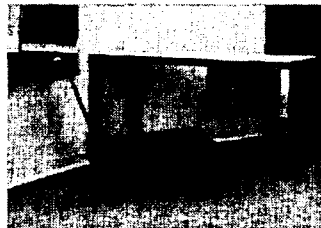
1925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Gunnar Asplund는 Senna<사진 1>라는 이름의 암체어를 내놓았다. 코르호넨은 아알토가 그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Asplund로부터 빌려온 미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화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기술을 추천했다.

아알토의 Folk Senna<사진 2>는 노출된 좌석과 등받이를 다소 검소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나 필요시에는 좌석과 등받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분리할 수 있는 커버로 덮개를 씌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스타일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서 아알토의 모색기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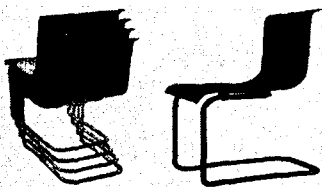
다음 단계 의자를 아알토는 세계 최초의 부드러운 나무의자라 불렀는데 이것은 혼합형 의자(hybrid chair)<사진 3>라 불리기에 적합한 의자의 프로토타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에서 빌어온 소프트한 요소와 Gunnar Asplund와 아알토에 의해 사용된 하드한 요소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1> Asplund의 'Senna' Chair, 1924년



<사진 2> Aalto의 'Folk Senna' Chair, 19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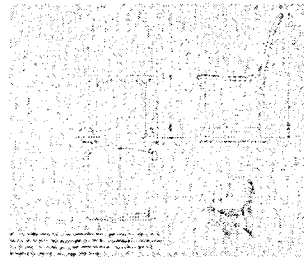
<사진 3> Stackable 'Hybrid' Chair, 1930년

## 2.3. 실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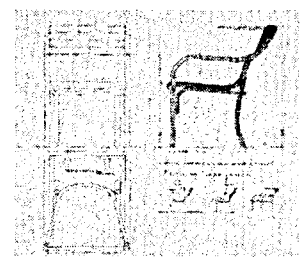
아알토의 가구디자인에 대한 생각의 다음 단계는 1929년 9월 9일 그가 베를린의 Thonet-Mundus에 제출한 6개의 참가목록에서 추적할 수 있다.

3)Aarno Ruusuvoori, Alvar Aalto, The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Helsinki, 1981,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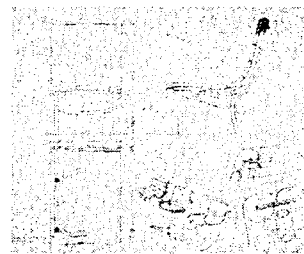
아알토의 참가목록은 ①코르호넨 원리에 따른 포개 쌓을 수 있는 단순한 의자<사진 4>, ②다른 sitting position으로 된 암체어<사진 5>, ③윗부분이 혼합형 의자와 같은 스타일로 된 다리 4개의 의자<사진 6>, ④아알토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문제를 도면상으로 잘 해결한 Breuer의 탄력성 있는 파이프로 된 다리부분을 나무로 대체시킨 의자<사진 7> 등이다. 다른 2개의 목록은 나중에 실제 모델이 완성되는데 ⑤하나는 작은 serving table<사진 8>로 활주부를 갖춘 썰매모양으로 디자인되었고 ⑥다른 하나는 겹끼운 탁자(nest of table)<사진 9>인데 10개의 테이블을 겹끼워 놓을 수 있고 단지 높이가 9cm 밖에 차이가 만나게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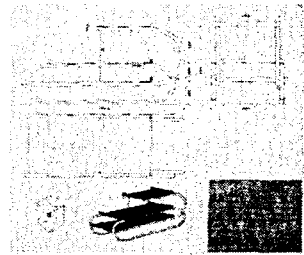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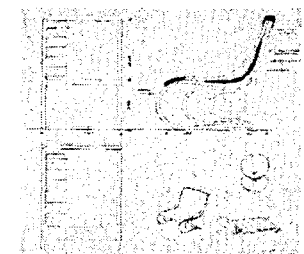
<사진 4> Stackable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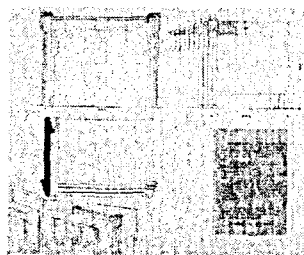
<사진 5> Armchair



<사진 6> 혼합형 의자와 같은 스타일의 체어 <사진 7> 파이프 부분을 나무로 대체시킨 체어



<사진 8> Serving Table



<사진 9> Nest of Table

아알토는 Thonet Competition에서 수상하지 못했고 그의 도면은 반환되었다. 그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아알토의 목록에 대해 기술상으로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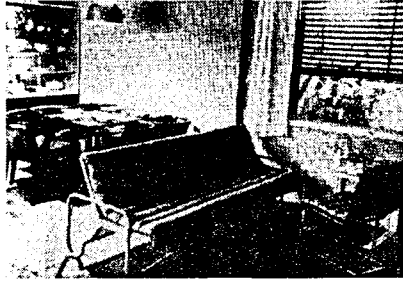
Thonet Competition은 클래식한 Thonet가구와 마찬가지로 재료로서 너도밤나무로 된 둥근막대(round rods of beech)를 주로 사용하였다. beech는 핀란드에서 수입되었고 Huonekalu ja Rakennustyötehdas Oy에서도 beech를 사용했지만 아알토와 코르호넨이 원하는 값싼 표준가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birch

사용에 중점을 두어야 했다.

아알토의 나무에 대한 애정은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sup>4)</sup> 나무를 고도로 가공 처리하여 수출하려는 국가적인 관심과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실험기의 특징은 아알토가 가구의 재료로서, 다각적인 실험을 통해 핀란드 수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작나무(birch)사용에 중점을 둔 시기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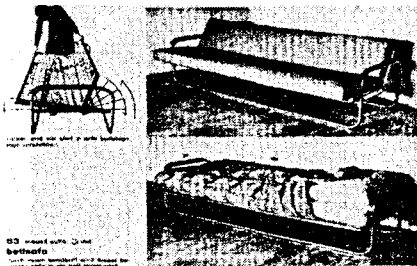
아알토 가구 발달의 다음단계는 1930년 헬싱키의 미니멈 아파트 전시회(Minimum Apartment Exhibition)<사진10>에서였다.



<사진 10> 미니멈 아파트 전시회 Helsinki, 1930년

미니멈 아파트란 훌륭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요소를 만족시키는 가장 경제적으로 설비되고 생산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다. 그것의 주된 목표의 하나는 값싸고 실질적이며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구를 대량생산하는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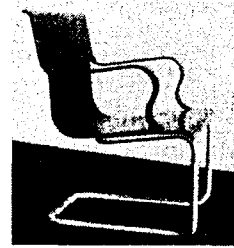
전시회에서 아알토는 그 자신이 공간을 혼합형의 쌓는 의자와 최초의 표준 조명기구와 침대로 바꿀 수 있는 소파(Convertible Sofa)<사진 11>등으로 설비했다.



<사진 11> Convertible Sofa, 19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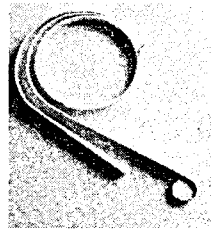
## 2.4. 완성기

아알토와 포르호넨은 1930년에 가구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를 찾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으로 나무를 켜고, 구부리고, 쪼개고, 늘이고, 접합하고 아교로 접착하여 휘었다. 이러한 작업의 첫번째 결실은 혼합형 의자의 변형인 암체어로 팔걸이(armrest)가 좌석과 등받이를 이룬 합판과 같은 판으로부터 만들어졌다.<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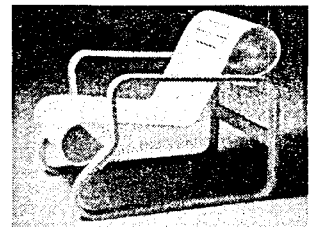


<사진 12> Hybrid Armchair, 1931년

아알토는 얇은 둥근 굴레로 된 frame을 <사진 13>구성하는데 molding plywood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 이것이 closed frame 위에 고정된 탄력성있는 좌석과 등받이를 갖춘 틀에 넣어 만든 합판으로 된 Paimio 암체어 <사진 14>가 나오게 된 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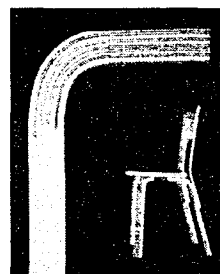
<사진 13> Bearing Frame, 1931년



<사진 14> Paimio Armchair, 1932년

파이프로 된 의자와 같은 정도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 Paimio 암체어의 closed frame을 오픈시킨 아이디어는 도식화하기는 쉬우나 기술적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이 오픈된 곡선형의 frame은 재료가 건조되었을 때나 의자를 상당기간 사용한 후 탄력성이 이완되었을 때 형태가 변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르호넨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아알토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알토 자신의 평가에 의하면 "bent knee"<사진 15> 아이디어였다. 자작나무를 결대로 켜서 그 홈 사이로 얇은 나무 조각을 아교로 붙여 원하는 각도로 휘는 방법인데 90°까지 휘어진다. 이 bent knee기법은 현대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며 근대디자인에 있어서 의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5)</sup>



<사진 15> bent knee 기법, 1933년

4)핀란드는 전 국토면적의 2/3가 산림으로 뒤덮혀 있는 세계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이며 임업 생산량의 80%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5)Dung Ngo & Eric Pfeiffer, Bent Pl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3, p.34

1933년은 아알토가 세계적인 가구디자이너로 인정을 받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록한 해이다. 그의 중요한 기술혁신인 wooden chair with spring arms와 angled wooden leg가 1933년 Milan Triennial에 소개되어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값싸고 우아한 아알토 가구에 경이로운 적극성을 갖고 반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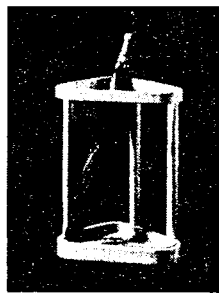
### 2.5. 아르텍(ARTEK) 시대

Artek이 설립된 초기에는 기존의 가구모델 시리즈를 가지고 일을 했으나 병원, 사무실, 도서관, 식당, 유치원 등을 위한 가구 및 실내 프로젝트를 맡음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디자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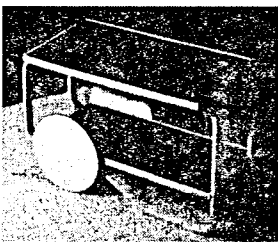
1937년에 이르러 아알토 가구의 새목록이 될 3가지 아이디어가 구성되었다. 하나는 삼각형의 구조물로 선반<사진 16>이나 옷걸이를 버티주거나 벽에 작은 테이블을 고정시키거나 우산꽂이<사진 17>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2종류의 차수레(tea trolley)<사진 18,19>의 변형인데 이것은 1929년 Thonet Competition에 제출되었던 활주부를 갖춘 썰매모양으로 된 'serving table'이 발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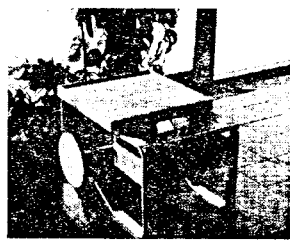
<사진 16> Triangular Shell Console, 1936년



<사진 17> Umbrella Stand, 19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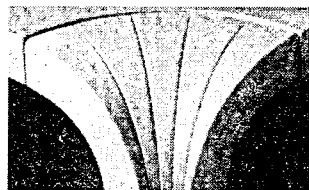
<사진 18> Larger Tea Trolley, 1937년



<사진 19> Small Tea Trolley, 1936년



<사진 20> Two Sided Y-leg, 1947년



<사진 21> Fan-Shaped X-leg, 1954년

아알토의 가구에 있어서 다리(leg)부분은 특별한 주문에 의해서 또는 건축스타일에 따라 아알토의 가구스타일은 Doric,

Ionic, Corinthian 기둥처럼 분명하게 바뀌었다. 간단히 모서리를 휘다리는 1947년 Y-leg<사진 20>와 결합되었다. 1954년 부채꼴형 X-leg(Fan shaped X-leg)<사진 21>가 뒤따라 개발되었다.

### 3. 결론

알바르 아알토(Alvar Aalto)는 건축과 가구디자인 분야에 있어 그의 조국 핀란드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바우하우스 이래 근대 공예운동의 지배적 흐름인 기능주의의 보편성에 의하여 작품들이 획일화되고 기계적인 경향을 나타낸 국제적인 사상적 주류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여 후세의 건축과 가구디자인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아알토 가구의 발전단계는 건축적인 아이디어, 형식적인 미, 독특한 외적 환경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무엇보다도 Otto Korhonen과 같은 유능한 장인과 아알토 사무실 내의 조수들로부터 Aino Aalto, Maija Heikin-heimo와 같은 Artek의 유능한 가구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알토의 지휘하에 아알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을 반복했다. 즉, 대중의 요구를 참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알토는 가구에 있어 기계 생산적, 양산적, 정형화에 노력하여 근대디자인 정신과 공장 생산에 가장 적합한 조건 모두를 갖추는 목재의 활용법을 통해 후세의 가구디자인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sup>6)</sup>

결론적으로 아알토의 가구작업은 그의 건축적인 작업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아알토 건축에 있어 중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sup>7)</sup> 즉, steel tubes로부터 bent wood로의 전환과 가구를 디자인해 내기 위하여 아알토가 나무를 가지고 행한 실험은 1930년대 그 자신의 건축형태를 추구하고 발견하는데 있어 생동력있는 자극이 되었다.

### 참고문헌

1. Aarno Ruusuvoori, Alvar Aalto, The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Helsinki 1981
2. Dung Ngo & Eric Pfeiffer, Bent Pl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3
3. Frank Russell, A Century of CHAIR DESIGN, Rizzoli Int'l inc, New York, 1980
4. Juhani Pallasmaa, Alvar Aalto Furniture, The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Helsinki, 1985
5. Charlotte & Peter Fiell, 1000 Chairs, Taschen, 1997
6. Mel Byars, 50 Chairs, Rotovision, 1999
7. Michale Collins, 현대디자인의 이해, 한영호 · 김홍기, 기문당, 1992
8. Pridd, 가구디자인 & 목재가공2, 박희준 · 도서출판 예경, 1995

6)Juhani Pallasmaa, op. cit., p.85

7)Dung Ngo & Eric Pfeiffer, op. cit., p.36